



문화역서울 284

100-162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CULTURE STATION SEOUL 284

1 Tongil-ro, Jung-gu, Seoul 100-162 Korea

T.02-3407-3500 F.02-3407-3510

<http://www.seoul284.org>

해시태그 #문화역서울284 #문화역서울284rto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서울역 1호선, 4호선 2번 출구

공항철도 서울역 1번 출구(서울역 광장 방향)

문화역서울 284  
기획 프로그램 I

# 봄꽃의 놀이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 RTO

2015. 5. 27 - 2015. 7. 4

무료  
입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 284

# 불꽃의 놀이

불꽃의 놀이는 장소특정적 공연과 융합 예술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감독 신수진  
공연기획 프로듀서 강낙현  
연구원 정유호

## 문화역서울 284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역동적이고 개방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통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이 원형 복원 후 2011년 8월에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되는 곳으로 재탄생했습니다.



## 문화역서울 284 RTO는

옛 서울역의 미군 장병 안내소(Railroad Transportation Officer)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예술창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27 ⇨ 20:00	Black Under	rufxxx   김형남	RTO
6. 10 ⇨ 20:00 6. 11 목 20:00	The Arts Of Travel	정보경댄스프로젝트   정보경	RTO
6. 13 토 14:00, 17:00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김모든	RTO
6. 19 금 20:00 6. 20 토 17:00	El Nino-La Nina	Project No.   차종현	RTO
6. 24 ⇨ 20:00	이야기를 찾아서	극악무도   이승우	중앙홀
6. 27 토 17:00	주다 그리고 받다	김혜경	RTO
7. 3 금 20:00 7. 4 토 14:00, 17:00	Moments of Absence	Very Theatre   Tungyen CHOU	RTO

# Black Under

rufxxx | 김형남

2015. 5. 27. 20:00 RTO



장르 현대음악  
공연시간 50분  
연출 김형남  
소리 황재상 성규리 박효진 윤하진 김건형 김남욱 박선주 주세환 안건 정지영  
그림자 와사비 장세음 원선애 고주혜



## “지난 3년간 수집해온 소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루프엑스의 새 공연 <블랙언더>는 이전 공연 <데드맨워킹>이 추상적으로 구성한 소리와 움직임의 조합의 연장선상에서 잠재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조금더 구체화하려고 한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세기를 거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극단적인 변화들은 이제 실제로 일상의 모든 곳에서 사고와 재난, 혼돈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블랙언더>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와 증상을 작은 제식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역서울 284 RTO 공간에서 진행되는 <블랙언더>의 첫번째 테스트는 미군 병력의 대합실로 쓰였던 공간의 이력을 모티브로 최근 6개월간 루프엑스 공간에서 진행된 요소들을 구성하게 된다.



### 루프엑스

루프엑스(rufxxx)는 2011년 같은 이름의 공간에서 디렉터 김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안 극장 프로젝트이다. 카페, 바, 블랙박스 씨어터의 요소가 혼용된 공간에서 주말마다 진행되는 공연이 프로젝트의 기본 형식이자 내용으로 4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2년 플레톤 쿤스트할레 서울이 기획한 살롱 레블루셰네어 공연으로 초청된 <원드블로우>는 서울오 픈아트페어, 리빙디자인페어, 인사미술공간 등에서 공간과 행사의 성격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2013년 스페이스함, 대안공간 풀, 대림미술관 등 갤러리 공간에서 전시의 일부로 진행된 <데드맨워킹>은 2014년 두리출터에서 소극장 공연으로 제작되었다.

# The Arts of Travel

정보경댄스프로젝트 | 정보경

2015. 6. 10. 20:00

2015. 6. 11. 20:00 RTO



장르 무용/다원

공연시간 45분

안무 정보경

출연 정보경 김주빈 김세정 이혜준 선은지 함채원 김현우 김시원 송윤주 양한비 김서현 고지인 김승수 박 일

음악 고지인



## “여행의 순간, 우연에 집중하여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The Arts of Travel〉은 2015년 3월 Taipei Artist Village 에서 그 첫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빛을 통해 저장하며 기억과 추억에 대한 각각의 네러티브들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공간의 빛의 온도와 촉감은 때로는 낯선 빛으로 여겨지며 익숙함 안에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한다.

본 작품은 빛이라는 밝기의 크기 보다 세상에 투영되는 빛의 다른 경험을 찾는다.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은 계획

적이거나 혹은 예상된 결과의 사실 나열이 아닌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우연에 집중하며 그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좋은 여행이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가야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다시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내 삶의 진정한 지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으로 관객들의 삶에 기분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길 바라며.

## 정보경

정보경은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컨템포러리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길위의 사람들〉 발표 이후 듀엣형식의 초연을 4인무로 재구성하여 2009 서울국제안무대회에서 일본 NPO-DAM의 공식초청을 받았으며 2010년 SPAIN BILBAO ACT FESTIVAL 본선에 초청되어 최우수 상인 ACT PRIZE를 수상하였다. 2011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2011 Critic's Choice'에서 〈고맙습니다〉로 최우수 상 외 다수를 수상하였다. 2010년부터 시도한 무용 공연의 새로운 장르의 개발과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지향하며 타 예술과의 접목을 이어오며 장소 특정적 작업 등의 성과로 한국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김모든

2015. 6. 13. 14:00, 17:00 RTO



장르 현대무용/미디어

공연시간 25분

안무 김모든

출연 김모든

음악 N2 남상원

영상 DaDa's Beam



## “움직임과 공간과의 관계성에 주목한다”

고독과 고립의 경계에서의 존재의 의미를 균형과 방향을 잃고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빛과 어둠이라는 세부 주제로 접근한다.

팅 빈 RTO의 첫 인상은 남아져 있는 내벽의 모습에서 마치 지하세계 혹은 실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했던 때의 기억과 함께 특정 단편소설 속 배경이 떠올랐다. 공간 주변 서울역의 소음을 수용하면서도 고요한 이곳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대안적 공간과도 같은 이색적인 인상을 받았다.

이에 몸을 매개로 효용적이고 이상적인 안무에 대해 접근하고자 했다. 삶 안에서 인간의 몸이 관계를 통해 감

정과 행동의 변화과정을 공간의 대한 해석과 다양한 방향제시 안에서 무용수는 구성된 움직임 선보인다. 몸의 개념적 접근과 정보를 통해 구조적으로 접목되는 지점을 찾고, 무용수와 공간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무용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결정된 구성체계 안에서 몸이 갖는 질감이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혼합되어지고 유기적인 흐름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추상적 상상을 동원하여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이 몸, 사운드, 설치미술과의 협업 과정에서 보다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한다.

## 김모든

무용수이면서 안무가인 김모든은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후 2007년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해오고 있고 2009년 서울무용제 경연 신인 안무상 부문에서 〈자리〉로 안무상을 수상하였다.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시점의 변화와 공간과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몸의 구조의 관계성을 매개로 미디어 아트와 단편 영화, 연극, 한국 전통음악의 협업으로 몸의 언어가 무대화되는 지점을 모색하고자 개인 프로젝트에서 2012년 [컴퍼니 모든]을 창단하였다. 2013년 국립현대무용단 단원, 2014년-2015년 객원 단원으로 참여하며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El Nino-La Nina

Project No. | 차종현

2015. 6. 19. 20:00

2015. 6. 20. 17:00 RTO



장르 현대무용

공연시간 40분

안무 차종현

출연 차종현 송치봉 임유정 김유정 최미나 양호식 양성식 김웅태

음악 이진우

스태프 박지현

의상 eldu



## “소년, 소녀가 성인이되어가는 우리의 날들”

El Nino - La Nina 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의미한다. 소년, 소녀, 아이가 어른이 되던 그 시절. 자아를 찾아 헤매던 그 공간. 빛과 그림자, 선과 악, 남자와 여자, 흑과 백, 하늘과 땅, 너와 나 소통을 배우는 그시간. '어둠을 헤매어 빛을 만나다.'를 모티브로 어린시절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 더 넓고 밝은

빛을 찾아 헤매이며 꿈꾸던 우리의 날들을 표현해본다. 어쩌면 지금도 빛을 찾지못해 어둠 속을 헤매는 나 자신의 모습과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둠속에서 찾고있는 빛, 우리가 힘을 합쳐 같이 찾아보고자 한다.

## 차종현

안무가 차종현은 중앙대학교 무용과(현대무용전공)와 중앙대 교육대학교(무용교육)졸업 후 최상철 현대무용단으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Project No.라는 이름과 함께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13년 베이징 국제안무 페스티벌(International Choreography Festival)에서 안무상, 2014년 평론가가 선정한 M극장 베스트 레퍼토리 수상, 같은 해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SCF) NOISM AWARD 수상한 이후 일본의 DH030 페스티벌의 잇단 초청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현재공연활동 외에도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충남예술고등학교 무용과 강사, 계원예술고등학교 연극과 무용강사, 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등으로 무용 지도를 통해서 무용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이야기를 찾아서

극악무도 | 이승우

2015. 6. 24. 20:00 중앙홀



장르 국악/다원

공연시간 60분

연출 이승우

출연 이승우 박승이 김가희 황금잔디 객지웅 이재하 강유중

작곡 황금잔디



“광대들은 음악으로, 놀음으로 이야기를 찾아다닌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의 말은 빛을 잃는다. 광대들은 이 세상에 빛을 잃은 이야기를 찾아 다니고 그 이야기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 어두운 기억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광대들의 목적이다. 광대들은 음악으로, 놀음으로 이야기를 찾아 다닌다. 찾은 이야기는 다시 광대들의 놀음거리가 되어 한바탕 곳으로 펼쳐진다.

이번에 찾은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이야기. 첫눈에 반한 님을 기다리다 상사병으로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며 어두운 여인의 기억을 밝게 비춰준다. 작품의 음악은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조화, 그리고 서도소리에 바탕을 둔 집시음악을 컨셉으로 하여 새롭게 작·편곡하였다.

## 이승우

전통음악극집단 극악무도의 대표 이승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예술사 졸업, 동 학과 전문사과정을 수료하였다. 9살 때부터 김덕수에게 사물놀이를 사사하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진도씻김굿을 익혔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굿판을 떠돌며 무당들과 함께 굿을 하였다. 해군홍보단에 입대 후 12개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였고, 이후에는 음악감독으로 무용계에서 활동하였다. 이후 연극에 관심을 보이며 한예중 10주년 기념뮤지컬에 주역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강부자의 오구>, <손숙의 어머니>, <길 떠나는 가족> 등 대극장과 소극장을 오가며 연기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 <Who is 오르페우스?>, <대가리와 거시기>, <배뱅이> 연출, 국립국악원 브랜드 작품 <공무도하> 조연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다 그리고 받다

김혜경

2015. 6. 27. 17:00 RTO



장르 현대무용  
공연시간 45분  
안무 김혜경  
출연 김혜경 외 3인  
시낭송 모지민  
음악 정태호  
미술 리키



## “빛의 말을 들어보려 한다”

### GIVE AND TAKE

사물은 빛을 받아 형태를 드러낸다.

기억, 그 실체는 본디 흑과 백이라는 기본적으로 밝고 어두움이라는 선상에서 왕래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번 작업에 다가서 보려한다.

빛은 모든것에 스며든다.

빛은 전달체이다.

사물은 흡수체이다.

무대에 보여지는 모든것이 흑과 백이 된다.

흑과 백, 백과 흑.

빛의 종류 그리고 빛을 흡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브라운관이라는 형태로 시작하여 발전되어진 빛(전달)으로부터 받는 자극(흡수)은 마력과도 같다.

그래서 현재는 빛을 수시로 흡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빛을 지니고 다닌다.

그래서 빛의 말을 들어보려한다.

빛은 생각보다 인체가 갖고있었던 속성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 김혜경

무용가 김혜경은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 한 후 2008년부터 안은미컴퍼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CIE LINGA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문화역서울 284에서 주최하였던 아티스쿨 참여작가로 참가하며 본격적인 안무활동에 발 돌음을 하였고, 이후 2013년 <밥풀>, 2014년 <생활무용>, <1Room>, <육체의증거> 2015년 <Scan - 몸의 대화>등 지속적으로 실험적인 작업활동을 하고 있다.



# Moments of Absence

Very Theatre | Tungyen CHOU (Taiwan)

2015. 7. 3. 20:00

2015. 7. 4. 14:00, 17:00 RTO



장르 멀티미디어/다원  
공연시간 60분  
연출 Tungyen CHOU  
출연 김주빈 김세정



“그들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우리를 속속들이 껴고있다”

Moments of Absence의 소재는 우리 일상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은 누구도 아닌 항상 몸에 지니고 혹은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 따위의 전자 제품들이다.

그들은 우리 주변을 항상 배회하고 우리를 속속들이 껴

고 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할 것이냐 혹은 스마트 폰에게 사용당할 것이냐? 극중의 씬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바라본 우리 일상의 이미지들로 엮여 있다.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존재들이다.



Tungyen CHOU

베리 메인스튜디오와 베리 씨어터의 대표 조동옌은 타이페이 국립 예술대학에서 연출학 학사를 전공하였고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시노그래피 석사를 전공하였다. 조동옌은 영상과 공연 제작자로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멀티미디어와 공연예술을 접목시킨 다매체간의 협업을 오랫동안 이어왔고 그의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되었다. 그의 작품 〈Emptied Memories〉는 2013년 영국 세계 공연 디자인 축제에서 Interactive and new media design award를 수상하였고 신작 〈Teatime with me, myself and I〉는 중국과 덴마크, 한국으로 투어를 진행중이다.

# 바 람 의 놀 이

바람의 놀이는 거리예술 공연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흥겨운 분위기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놀 이 의 놀 이

놀이의 놀이는 다원예술의 근본을 탐구하기 위한 선진형 프로그램으로 관중 참여형의 공연입니다

7. 10 <small>금</small> 20:00	코리안 정글	타고	RTO
7. 17 <small>금</small> 20:00 7. 18 <small>토</small> 17:00	황천	인승현	RTO
9. 12 <small>토</small> 15:00	신호유희	노니	광장
10. 13 <small>화</small> 20:00	공모	작가 2인	광장 RTO
10. 15 <small>목</small> 20:00	공모	작가 2인	광장 RTO

7. 24 <small>금</small> 20:00	That's it	Sandman	RTO
9. 11 <small>금</small> 19:30, 20:30, 21:30	Mi Gran Obra	David Espinosa	중앙홀 RTO
10. 9 <small>금</small> 20:00	Beating McEnroe	Jamie Wood	RTO
10. 28 <small>금</small> 20:00	Leaving home party	Catherine Ireton	RTO

\*세부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 단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